

오늘의 기사판

제 19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포럼

24일
▲21세기 여성 아카데미 500회 특강=오후 4시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이 '주식회사 여성 재창조'라는 주제로 강연. 김홍식 전 군수와 오동길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에 공로패 수여.
▲제 19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포럼=오후 5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강연.
▲21C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유현 서울대 의과대 교수가 '뇌기반 교육과 두뇌장수학'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74회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좌=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고도원씨가 '꿈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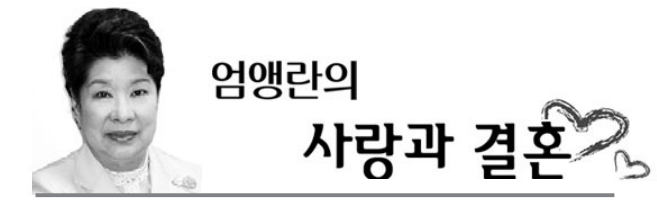
사람은 만난다'라는 주제로 강연.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상무금호보건복지회 보건교육장. 윤정열 국립나주병원 박사, 황인복 다사랑병원장이 '자활근로대상자의 알코올문제 유형과 해결방향', '습관성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 참가 대상자별 알코올중독 선별검사와 개인음주상태 검사 실시.
▲장흥다목적댐 보상공관 학술연구 용역결과 공청회=오전 10시 장흥군 유지전 회의실.
▲제 121회 강진 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자세와 가치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2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 도단위 전진대회=오전 10시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전남

지역 여성농업인 1천명 참석 예정.
▲제 11회 담양군 농업경영인대회=오전 10시 담양군 추성경기장. 후계농업인 및 가족 등 1천 600여명 참석예정.
▲박소영 플롯 귀국 독주회=24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다큐멘터리 고래=24일(목) 오전 10시, 오후 2시 광주시 향토문화센터 2층.
▲주부 인형극단 '미루나무' 정기공연=25일(금) 오전 10시 광주시 향토문화센터 2층.
▲개점 11주년 기념전 '섬역시문화기행전'=9월4일까지 광주시세계갤러리.
▲북아트 페스티벌=9월6일까지 롯데회관.
▲광주청년작가전=30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조선대 동문 기증 작품전=26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서양화가 정순수 개인전=30일까지 무등갤러리.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작품 41점 전시.
▲종이접기 전시회=25일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
▲인(人)과 예술의 만남전=31일까지 향토문화센터 3층 오일문화관.
▲서북한 서양화가 초대전=31일까지 동림우체국.

역사속의 오늘

▲하균 세상 떠남(1618)
▲대한신문화회 결성(1951)
▲중앙정보부, 통일혁명당 지하 간첩단사건 발표(1968)
▲정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발표(1981)
▲국무회의, 국군의 날과 한글날 공휴일에서 제외, 공휴일 이월휴무제 폐지(1990)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③ 사랑의 신호에 끼여 손 내밀자

"사랑하라. 그 사랑을 잃는다 해도 전연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슴을 부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 깊이 쓸쓸함을 더하게 하는 명언이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런 상대를 눈앞에 두고도 상대의 아주 사소한 단점이 마음에 걸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미래(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이 주제만으로 몇 날 며칠을 마음 깊이 와닿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람은 사랑을 하면 현명할 수 있지만, 현명하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누군가의 명언 또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랑이 다가올 때 지나치게 앞뒤를 재고 계산하고 먼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과 가치를 스스로 작게 축소해

그 적막한 울타리 안에서만 세상을 살다 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인과에 상관 없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얼마나 화열에 차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호감이 아니라 서서히 이성으로,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 순간을 놓친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는 그리 여러 번 찾아오지 않는다. 내일 이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혹은 1년 후, 2년 후에 커다란 이별과 시련의 아픔이 오더라도 지금 내게 슬며시 손을 내미는 사랑에게 거부하는 손

럽게 두 손을 내밀어 보자.
흔히 남녀 간의 만남에서 상대를 처음 본 외모와 목소리, 대화 등으로만 평가하고 마음을 담아버리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천 가지 모습을 가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날 그 모습과 대화가 그 사람의 전부가 생각하고 손을 저어 버리는 것은 정말 단순하고 바보스러운 처세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날, 또는 다음 주, 다른 계절의 그 사람은 혹시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보라.
나 또한 가끔은 그때그때 다른 내 모습과 나 자신에 놀랄 때가 있지 않은가?
외모와 첫인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랑할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기회를 알아차리고도 지나치게 현명함으로 인해 그것을 놓아 버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다. "현명함은 적당히 접어두고, 조금은 바보가 되어 있는 한껏 사랑하라. 그 사랑을 잃는다 해도 전연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손을 내미는 사랑에게 거부의 손짓 말아야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설턴트>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board) showing a specific position.

바둑소식 (Go News) section. Title: 안조영 9단, 김승준 9단 제압. Content: 안조영 9단이 지난 22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맥스커피배 입신최강전에서 김승준 9단에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김승준 9단은 3승 7패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대국 제한시간은 각각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며, 결승은 3번기로 진행된다. 전기 대회 우승자는 이세돌 9단이다. 대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800만원).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광일포럼 (15th Kwangil Forum) section. Title: 기분에 치우친 흑 37. Content: 이만재 5단은 어쩔 수 없이 33으로 밀어 백이 34로 기분 좋게 뛰어나가는 것을 허용했는데 흰가 흑이 꼬이 고 있는 느낌이다. 이 5단은 35로 두들기고 분이라도 풀 듯 37로 막았는데 이것이 또 기분에 치우친 수였다. 37로는 39에 늘어 뒤를 두들겨 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백 38에 끊는 것이 기분 좋은 짝이며 40으로 끊겨 백이 바라는 대로 난전이 되어버렸다. 이제부터가 어려운 중반전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뉴스퀴즈 (News Quiz) section. Title: 26.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지난 2003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으며,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사상 첫 여성 헌재 소장이 됩니다.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이 지명자는 누구일까요? ① 전홍숙 ② 박근혜 ③ 한명숙 ④ 강금실

참여 방법 (Participation Method) section. Text: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공조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telling) section. Title: 8월 24일(음 7월 1일)乙酉. Content: 36년생 지시 편에 경사가 생긴다. 48년생 보고 싶은 사람 떠났고 미운 사람 보인다. 60년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2년생 바쁜 하루가 된다. 84년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0. 37년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49년생 분수를 지켜야 내손이 곱아진다. 61년생 욕심을 버려야 대안이 생길 수 있다. 73년생 자신의 앞날에 변화가 온다. 85년생 속단은 금물이나 여유 있게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38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은 차려야. 5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62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나타나 큰 도움을 준다. 74년생 -흥- -애-가 있지만 꼭 좋지 않은 않다.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0, 32. 39년생 관측 놀랄 만한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생 겉보기와는 다르게 집기가 없다. 63년생 옛 일은 잊고 화해하라 망신은 면한다. 75년생 자녀와 직장 사이에 불륜사가 발생하나 측근이 도와준다. 행운의 숫자 : 12, 35. 40년생 서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생 직장에서는 연행을 접어서는 조심하라. 64년생 어려운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몇 내고 나가보라. 행운의 숫자 : 22, 28. 41년생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자신을 괴롭힌다. 53년생 지나친 욕심은 고통을 해준다. 65년생 가까운 사이에 신사는 절대로 시작하지 마라. 77년생 고운 정 미운 정 다 생긴다. 울바로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21, 44. 42년생 이성과 情分으로 구별수가 생길 수 있다. 54년생 인생의 후반전 다시 한번 달려보라. 66년생 아들이 괴롭는다. 대화가 필요하다. 78년생 형제 도움에 힘입어나 찾아보고 청해봐라 결정타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18. 43년생 부부간에 서로서로 살펴봐라. 55년생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적으리라. 79년생 삼사일인 생각하면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4, 43. 44년생 대화가 예상되니 굳은 마음을 각오하라. 56년생 자신 재주 믿다가는 큰일을 그르친다. 68년생 들고 날 때를 정확하게 지켜라. 70년생 해는 사라진다. 80년생 친한 친구일수록 말조심 행동 조심. 행운의 숫자 : 24, 31. 45년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서 행하라. 57년생 아들 과 대화하고 고민을 들어보라. 69년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고 나면 예정은 빠듯하다. 81년생 형제 부부가 모두나 모든 일이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17, 42. 4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講事가 풀려간다. 58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면과도 좋으리라. 70년생 여자의 마음이 헷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82년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울어라. 행운의 숫자 : 01, 41. 47년생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니 조심 또 조심. 59년생 자신만 조심하면 만사는 형통하리라. 71년생 자신의 폭언으로 쌓아온 명성이 격정되니 언행을 조심하라. 83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3, 43.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as far as ~ is concerned ~에 관한 한. 2. 大きすぎない? 너무 크지않아?. 3. 我点的菜都上了吗? 주문한 요리 다 나왔나요?. 4. 處暑 (처서) 있을 처, 더위 서. Each column includes English text, Korean text, and Japanese text with explanations.